

- ◇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질병의 치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정한 인간의 수명이 과연 얼마인지 측정하기 어렵다.
- ◇ 려울 정도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생명의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 ◇ 인 현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 심혈관계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계질환, 관절염을 포함한 여타 퇴행성질환, 그리고 흔히 암으로 불리우는 자.
- ◇ 중 악성종양과 같은 성인병의 대두이다. 이들 성인병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것이 많.
- ◇ 고 만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근본적 치료보다는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가 대.
- ◇ 부분적으로 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특히 각종 암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인간의.
- ◇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치료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현대의학의 최.
- ◇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암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증.
- ◇ 상, 진단 및 치료대책 등 일반적 개요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암은 역시.
- ◇ 위암, 자궁암과 간암이며 이밖에 결직장암, 유방암, 폐암, 담도암, 식도암 등이 비교적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抗癌 대책

우리나라에서 흔히發見되는 癌의 症狀·診斷·治療 대책을 中心으로

인간이 자기의 수명을 살아가는데 있어 암에 한번은 걸린수있는 확률을 대체로 25%로 볼만큼 점차 암의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그 원인은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고 다만 동물실험을 통하여 몇가지 요인을 추정하고 이를 연구하게 되는바 대체로 화학적물질, 물리적물질, 바이러스 등으로 발암물질을 대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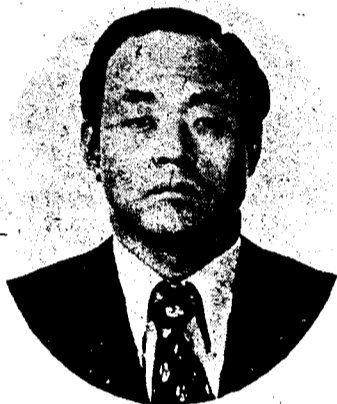
화학적 발암물질에는 비노기계의 암과 관계가 있는 아민성분,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 피부나 기관지암을 유발할수있는 물발성분, 기타 파라핀유, 아스베스토스, 니켈이나 크롬같은 중금속등이 포함되며 물리적 발암물질은 방사선이나 자외선 또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자극을 그 예로 들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있어서

한 증상을 나타내기때문에 항상 암의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암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우선 종양이 팽창하여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들 수가 있다. 체표근처에서 자라는 암은 바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종유로 나타나기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내

生化學的 및 血清學的인 檢査方法 開發가 最 절실 症狀 없는 경우 早期發見 爲 目的

最終的인 診斷은 組織檢査, 姑息的 治療方法도 無視 勿해



金 鎮 福 <서울醫大 日 外 科 教 授·醫 博>

몇가지의 바이러스도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한가지도 아직 인체에 있어서 결정적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유전적요소나 지역적인 요소도 하나의 소인으로 생각할수있으며 암진단계의 몇가지 질환이 일정기간지나후 암으로 전환되는 예로보아 이러한 질환도 암의 원인에서 제외될수는 없다.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일단 암이 발생하여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느정도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암특이성의 증상이 아닌 일반질환의 증상과 다른없는 비특이성의 모호

부 장기에서 성장하면 장내부의 폐쇄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등이다. 둘째로는 암의 침윤성 성장에 따른 증상으로서 위 신경을 침습하여 동통이나 마비의 현상을 가져오게 되며, 셋째로 암 자체의 성장과정에서 오는 피부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출혈, 궤양, 세균감염의 여러증상이다. 이상의 극소적 현상외에도 원발부위의 증상없이 원격 전이되어 전혀 다른 부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증상을 나타낼수도 있으며 암세포에 의하여 분비되는 독소나 특이한호르몬에 의하여 나타나는 전신증상도 있을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여러 증상들이 항상 암을 의심할만한 특이한 증상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암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면밀하고도 주의깊은 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 체중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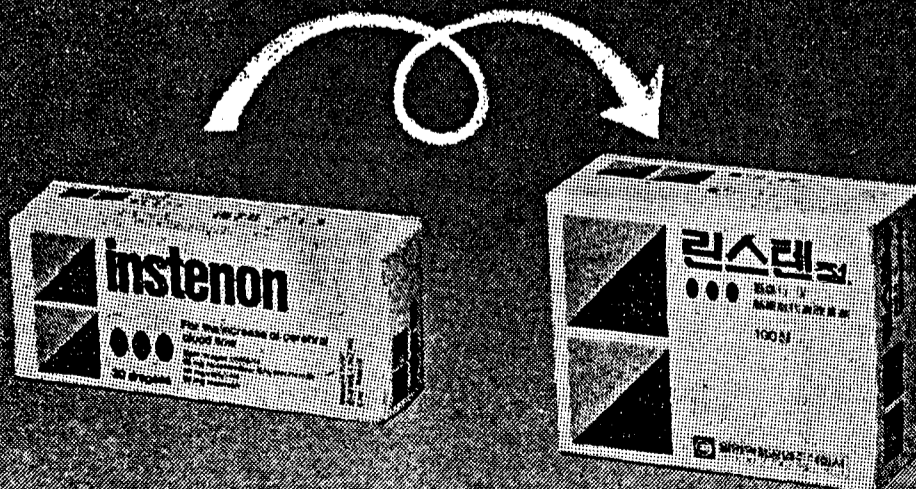
소, 식욕감퇴, 출혈이나 분비물여부, 잘치유되지 않는 상처, 지속적인 기침, 목소리의 변화, 배변습관의 변화, 갑자기 커지는 종유가 있는지 면밀한 문진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이학적적사도 아울러 시행한다. 혈액, 소변, 대변검사도 아울러 시행하여야 하며 내부 장기에 대하여는 방사선검사, 동위원소검사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아울러 세포학적 검사나 조직검사를 추가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 검사방법을 동원할때 체표면 근처에 발생한 암은 그 직경이 1cm 이내일때도 진단이 가능하게 되나 내부 깊숙이 자리잡은 종양은 그 직경이 10cm를 넘어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증상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암검사방법으로 특이한 생화학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방법의 개발이 암의 조기 발견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하암동 24-5 Tel. 92-5791-5

알려 드립니다.
케미·린즈의 腦血行 및 腦細胞代謝改善劑
「인스텐」이 「린스텐」으로 이름이 바뀌어
4月 부터 一洋藥品에서 生産·新發售 됩니다.



- Increase Cerebral blood flow
- Autoregulate brain metabolism
- No steal effect

“린스텐은 오스트리아 케미린즈社에서 개발하고 뷔엔나대학교 약물학교실 Kraup 교수에 의해 研究된 腦血流 개선치료제로서 뇌대사개선제 Hexobendine과 腦幹網様體 活性化劑인 Ethamivan 心搏出量 증가제인 Ethofylline으로된 複合 腦질환치료제입니다.”

- (특징)
- ① 複合腦疾患 치료제입니다.
 - ② 腦代謝를 自動調整하여 Glucose의 代謝를 정상화시킵니다.
 - ③ 代謝正常化時 유리된 H⁺에 의해 뇌혈관 및 관상혈관 확장作用이 있습니다.
 - ④ 腦血管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 ⑤ 산소포화도를 理想的으로 증가시킵니다.
 - ⑥ 腦幹網様體를 活性化시켜 수면, 각성리듬의 개선등 뇌기능을 정상시켜 줍니다.
 - ⑦ 血圧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투약할 수 있습니다.
 - ⑧ STEAL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⑨ 장기치료에도 내약증상이나 위장관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신경과 긴장에 대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 적용증 : 腦血管不全症, 중추신경계로 의한 피로와 소모상태, 뇌졸중후유증, 뇌의 현훈상태, 회복기면자.

腦血行 및 腦細胞代謝改善劑
린스텐정
 100T 10,000원